



신안 자은도 땅콩 옛 명성 되찾는다

올 35ha서 143t 생산 17억원 소득
특제작육 육성...매년 재배 면적 확대

신안군 자은도가 1980년대 땅콩 주산지였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신안지역 땅콩 재배면적은 35ha(43 농가)로 143t을 수확, 본격적으로 출하하며 총 17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산 땅콩은 자은면 청정지역 사질(砂質) 토양에서 재배돼 품질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1kg당)은 볶음 땅콩 2만2000원, 피땅콩 1만5000원이다.

신안 땅콩재배 농업인들은 지난해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신안땅콩 주식회사'(대표 표영득)를 설립, 생산·가동·유통혁신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한 대파의 대체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신안땅콩'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배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 자은도에서 땅콩을 재배할 때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 여주현씨 등이 보리 재배가 안 되는 사질토양에 맞는 땅콩종자를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180여호가 300ha에서 땅콩을 재배해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충남까지 '명품 땅콩'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연작으로 인한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하자 부득이 땅콩 재배농가들은 대파로 작목을 전환하게 됐다.

다시 땅콩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대파가 가격이 해마다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한데다 자은도 토질이 땅콩재배에 적합한 사질 토양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신안군이 자은도를 땅콩 테마섬으로 조성하면서 지역특화 작물로 부활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공동으로 땅콩을 특제작육 대표 브랜드를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해충과 쓰러짐에 강한 개량종(풍산종) 땅콩생산은 물론 파종과 수확작업을 기계화하는데 성공,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콩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 지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기, 수확기 등 생력(生力) 농기계 등을 확대 보급해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포장 브랜드화로 대형마트 등 판매처를 다양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안지역 대표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지역 땅콩재배면적은 2009년 23ha(31농가), 2011년 27ha(36농가), 2013년 30ha(40농가), 2014년 35ha(43농가)로 증가추세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광군, 농산물 정원 컨테스트 대상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고추·채소로 해안도로 작품화

영광군이 최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이색농산물 정원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영광군은 희귀고추 분화작과 박과 채소로 백수 해안도로와 노을을 작품화<사진>해 영광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흥겨운 놀이공간을 만들었다.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은 지역특색을 표현하고 고향의 향수와 가을 정취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광군은 이색농산물 정원 컨테스트 이외에도 보리와 모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인 농업홍보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관내 우수농산물을 발굴하여 출품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농업'이라는 주제로 아열대 식물원 등 10개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무안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경작면적 3ha 미만으로 완화

무안군은 최근 승달 문화예술회관에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농가와 시공업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대상농가에 사업 추진요령과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ha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수·채소 등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소외받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한해 경작면적을 3ha 미만으로 완화해 올해 190동을 농가에 지원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837동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주 군수는 "육묘용 상토와 토양개량제, 마늘·양파 기계화,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한경쟁 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에서는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가을을 그리나...국향대전 미술대회

5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오당안동숙 미술대회'에 참가한 함평지역 학생들이 그림 상매경에 빠져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467명이 참가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다도해 감상하며 늦가을 산행 15일 신안 팔금면 전국 섬 등산대회

다도해를 바라보며 산행을 만끽할 수 있는 등산대회가 신안에서 열린다.

전국 섬 등산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수)는 오는 15일 신안군 팔금면에서 '전국 섬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등산대회는 팔금~압태도를 잇는 연도교인 중앙대교에서 출발해 채일봉(해발 158m)~원산마을~서근마을을 입구까지 4km 구간(2시간

소요)에서 진행된다.

식전행사로 주민들로 구성된 난타팀의 공연이 펼쳐지며, 다도해를 바라보며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하게 된다. 등산대회가 끝나면 고구마 케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최영수 추진위원장은 "산이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보석같은 다도해를 감상하며 등산하는 색다른 맛이 있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

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편은 압해도 송공 선착장에서 오전 6시부터 매시간 출발하며,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하면 10시 30분에 시작되는 행사시간에 맞출 수가 있다.

문의 신안군 환경공원과(061-240-8456), 팔금면사무소(061-240-3946).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공무원 정치후원금 2484만원 전달

신안군 공무원들이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2484만원을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안군청 직원들은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았다.

고길호 군수는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

다는 의식이 확산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수현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정치 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또 하나의 참여"라며 "정치인들이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조성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전국 산림생태복원대전 최우수상

신안군이 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 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단체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복원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년째인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최하는 공모행사로, 해마다 생태 복원기법이 적용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원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 서

류식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산불 피해로 인해 수목이 소실되고 황폐해진 신의면 상 태서리 일원의 산림 67ha에 가시나무 7095그루, 민나무 5670그루 등 자생식물 6만5600여본 식재해 섬지역 생태 복원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임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매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부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

“땅” 구매

공장부지 “땅” 구매